

第51回 發明教室

5月 14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5月 14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51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달에도 200여명이 參席...○
- ...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東進開發 柳東日 사장과 기브미...○
- ...産業 鄭柄海 사장의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 辨理士의 「工業所有權制度」...○
- ...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金顯壽 記〉...○

衛生칫솔합 發明의 先頭走者

기브미産業 鄭 柄 海 사장

간단한 아이디어를 發明으로 연결하여 發明企業人으로 부상한 기브미産業 鄭柄海사장. 20여년간 각종 機械를 製作해온 鄭사장이지만 자신의 發明을 商品으로 製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엿듯보면 이것도 發明品이나 할 정도로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衛生칫솔합이지만 당당한 實用新案 登錄品으로 輸出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시판은 6월 중순으로 계획되어 있다.

『현대인들은 健康을 위해 衛生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칫솔보관에는 허술한 감이 없지않지요. 입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칫솔을 용기에 꽂아두고 사용해 먼지 및 각종 雜菌에 오염되고 심지어는 파리까지 날아들어 전염병 발생의 원인까지 되고있는 실정이지요.』

이에따라 위생 칫솔합을 發明하게 되었다는 鄭사장의 설명. 鄭사장은 적은 면적에 여러개의 回轉式 꽃이를 설치, 최대한 縮少시켜 密閉된 函을 구상한 다음 特許열람→

市中製品 수집→設計→木材로 제작→아크릴로 제작등의 과정을 거쳐 衛生 칫솔합을 誕生시켰다.

이렇게하여 誕生된 衛生 칫솔합은 완벽한 通風設計와 영구자석을 이용하여 半永久的이며 설치에도 간편하고 칫솔꽂이가 다이얼식으로 칫솔끼리 접촉도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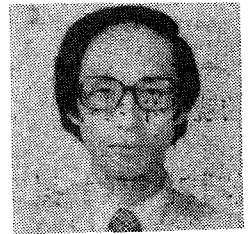
또 함으로 되어있어 먼지·각종 雜菌·파리등으로 인한 汚染을 防止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산뜻한 디자인과 多樣한 색상으로 세면장의 분위기도 돋보이게 한다.

이에따라 衛生칫솔합은 誕生과 함께 輸出의 길이 열렸다. 이때문에 국내 시판은 6월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또 慶事가 겹쳐 販促物로서 大企業의 관심도 대단하다. 이는 은가죽이 하루에도 2~3회를 접해야하는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이다.

『發明企業人으로서 成功의 지름길은 꼭 필요한 물건을 發明하는 것이지요.』

鄭사장은 衛生 칫솔합의 成功에



〈鄭柄海 사장〉

힘입어 또다시 「숨쉬는 고무장갑」을 선보일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鄭사장은 特許 1件, 實用新案登錄 13件, 意匠登錄 5件등을 가지고 있는데 한결같이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生活必需品으로 衛生을 강조한 것들이다. 숨쉬는 고무장갑에 이어 선보일 「多目的 스프레기통」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아이디어 商品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中堅 發明企業人으로 부상한 鄭柄海사장. 그는 오늘도 새로운 發明을 위해 밤을 하얗게 새우고 있다. <☞>